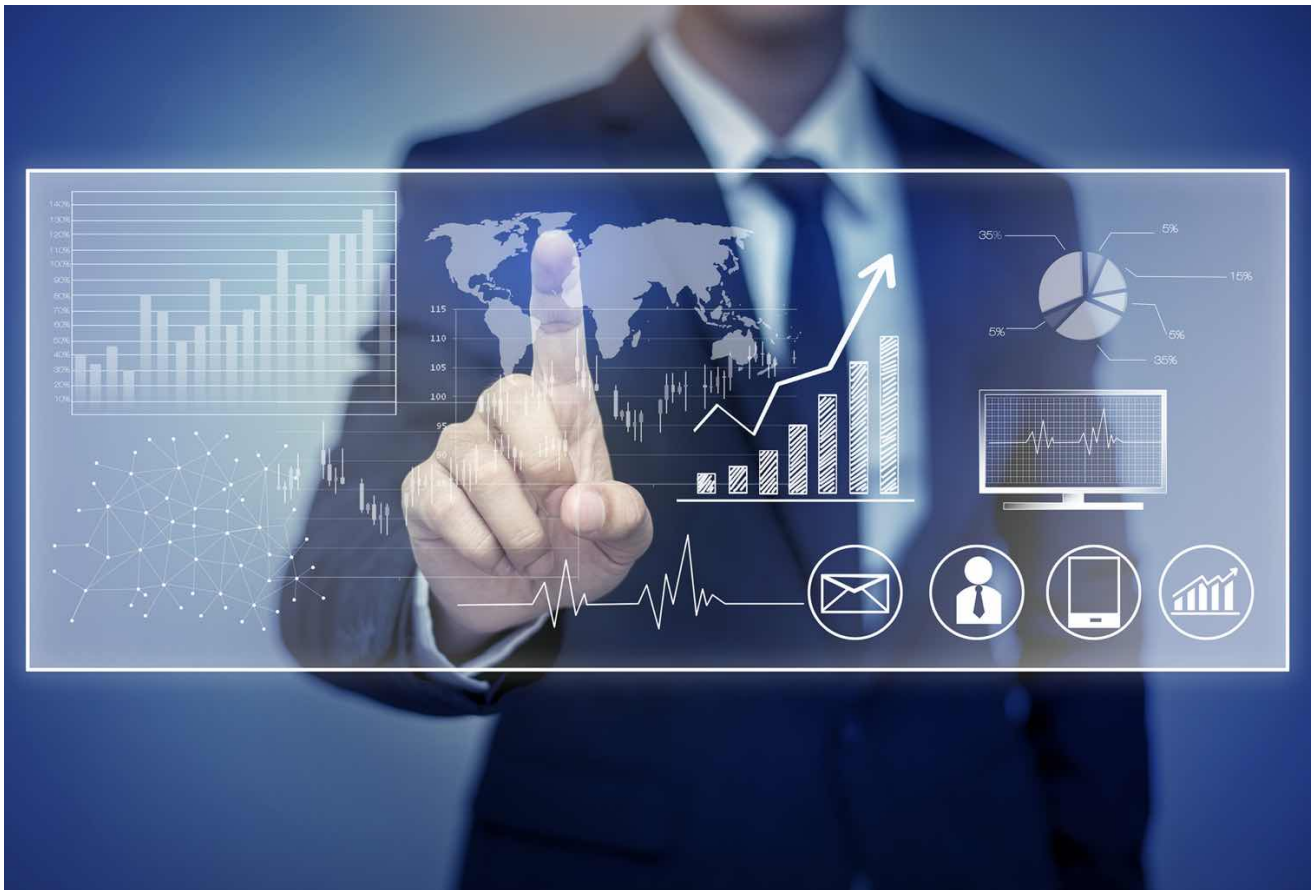


numbers 제 33호



주요 내용

2020. 02.07

1. 빅데이터로 본 '2019년 한국 교회'(주요 5대 이슈)
2. ① 10대청소년, 관심·흥미 주제 찾을 때, 유튜브가 압도적
② 한국인 5명 중 1명 '종종 소외감을 느낀다'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리포트

홈페이지 | www.mhdata.or.kr
E-mail | mhdata@mhdata.or.kr
전화 | 02.322.0726

빅데이터 분석

빅데이터로 본 2019년 한국 교회 (주요 5대 이슈)

최근 한국 교회탐구센터에서 2019년 한국 교회 관련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해서 발표했다. 분석 보고서를 보면서 그동안 조사 통계자료에서 잡히지 않던 새로운 결과들을 접할 수 있었다. 버즈량, 댓글, 조회수 등을 고려, 분석한 결과, 2019년 한국 교회 관련 다음의 5개 주제가 추출됐다.

목회데이터연구소 [넘버즈] 33호는 「2019년 한국 교회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신기로 한다.

1. 목회자 성범죄
2. 전광훈 현상
3. 동성애
4. 명성교회
5. 신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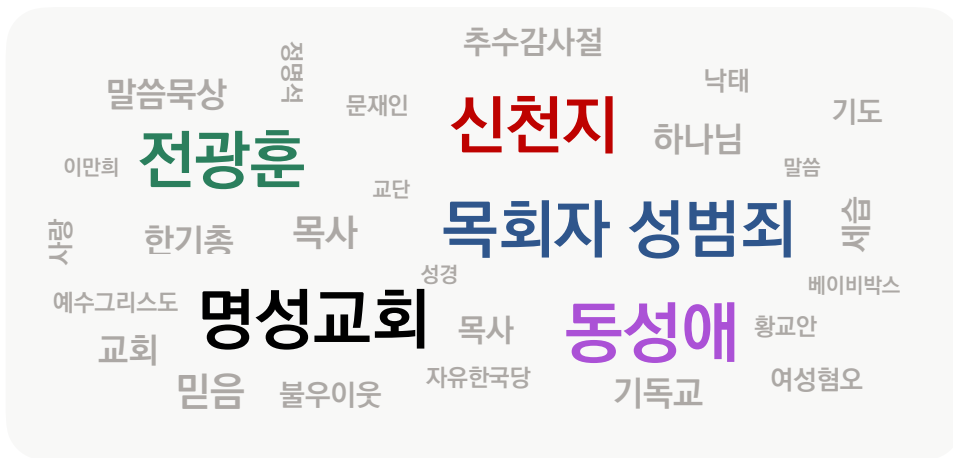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로 본 2019년 한국 교회 주요 이슈(5가지)

- 채널별로 전체 게시글 232,136건 중 월별로 동일 주제로 쓰인 게시글의 양이 많고 댓글 및 조회수가 높은 것을 주요 이슈로 도출한 결과, 2019년 한국 교회 주요 이슈는 ‘목회자 성범죄’, ‘전광훈’, ‘동성애’, ‘명성교회’, ‘신천지’ 등 5가지로 밝혀짐

[그림] 2019년 한국 교회 5가지 주요 이슈



•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개요

2019년 1년간 온라인에 게시된 본문 및 댓글을 대상으로 한국 교회 주요 키워드를 부여, 데이터를 수집하여 한국 교회에 대한 온라인 여론 분석을 실시함

1. 조사 주체 : 한국 교회탐구센터
2. 분석 기간 : 2019년 1월 ~ 11월
3. 수집 채널 : 네이버카페, 네이버뉴스
4. 수집 키워드 : 기독교, 교회, 목사
5. 데이터 수집량 : 총 232,136건 (기독교 98,620건, 교회 172,011건, 목사 49,097건)
6. 데이터 수집 : API를 활용한 웹 크롤링 방식(원하는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
7. 수집 및 분석 수행 : 목회데이터연구소 및 주)골든플래닛(TousFlu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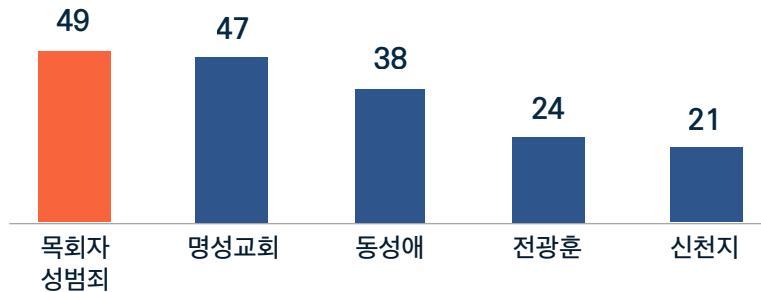
• 용어해설

- 버즈량 : 특정 주제에 대한 웹 상의 확산 지표
- 본문수 : 특정 기간 내 해당 키워드가 포함된 글의 수
- 댓글 수 : 특정 게시글에 달린 댓글 총 수
- 조회수 : 특정 게시글을 조회한 수
- 연관어 : 특정 주제에 대한 게시글(혹은 댓글)을 형태소로 쪼갠 후 유의미한 단어들을 추출한 언어

● 대중의 관심도(조회수 비중)는 ‘목회자 성범죄’가 1위를 차지함

- 일반인들의 관심도를 볼 수 있는 본문수 대비 조회수 비중은 ‘목회자 성범죄’가 49.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명성교회 세습’(46.8%)로 나타남. 그에 비해 ‘전광훈’과 ‘신천지’는 상대적으로 낮음
- 이는 소수의 관심자들에게 ‘전광훈’, ‘신천지’ 등이 중요한 이슈일 수 있으나 많은 대중들에게 ‘목회자 성범죄’와 ‘명성교회 세습’이 훨씬 더 중요한 이슈였다고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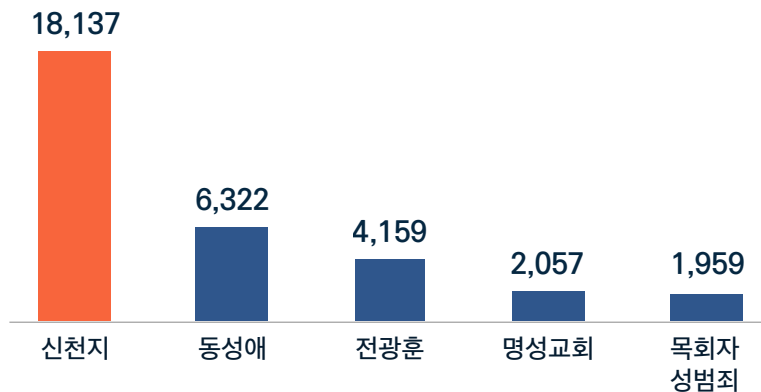
[그림] 관심도 분석 (총 조회수/총 본문수) (%)



● 단순 버즈량(본문수)은 ‘신천지’가 1위를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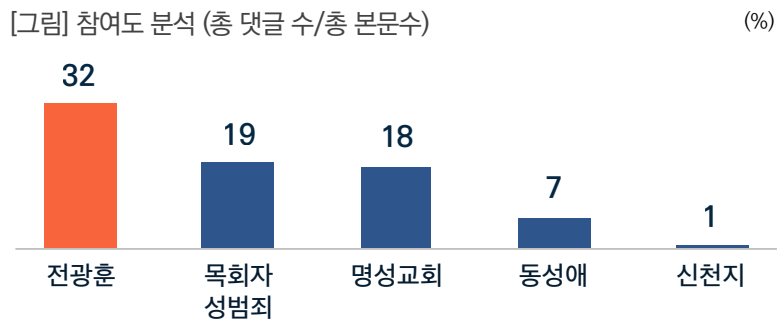
- 단순 버즈량(년간 총 본문수)은 5개 주요 이슈 중 ‘신천지’가 18,137건으로 1위로 나타났으며, 그 뒤에 ‘동성애’, ‘전광훈’, ‘명성교회’, ‘목회자 성범죄’ 순으로 나타남

[그림] 단순 버즈량 분석 (총 본문수) (건)



● 대중의 참여도(댓글 수 비중)는 ‘전광훈’이 1위임

- 일반인들의 참여도를 볼 수 있는 본문수 대비 댓글 수 분석에서는 ‘전광훈’이 32%로 압도적인 1위로 나타남. 다른 정치적인 이슈와 마찬가지로 ‘전광훈’ 현상에 대해서도 일반인들은 찬반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그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전광훈’은 조회수(관심도)에서 상대적으로 떨어지나, 일단 조회 후에는 다른 기독교 이슈보다 댓글 비중이 매우 높은 특징을 보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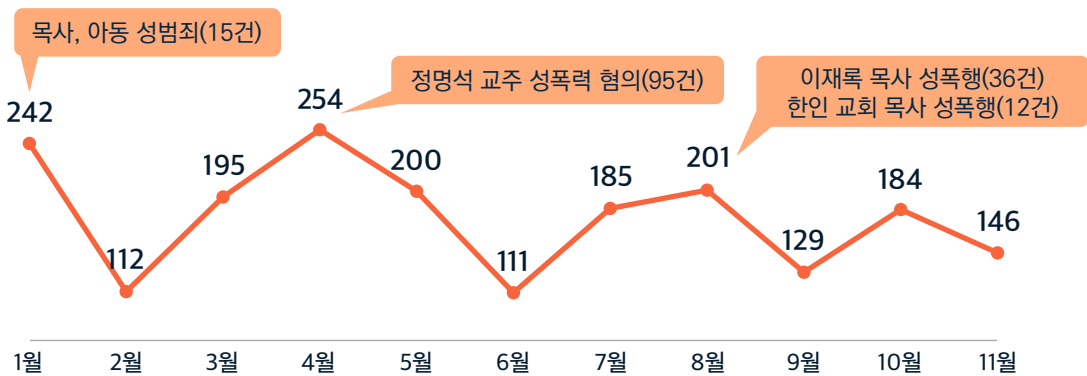
‘목회자의 성범죄’, 개인의 범죄를 넘어 이를 묵인하는 기독교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짐

- 5개 이슈 중 조회수 비중(관심도)이 가장 높은 이슈임
- 목회자의 성범죄(아동 성범죄, 신도 성 폭행 등)와 관련된 글들이 1년 동안 100건 이상 꾸준히 게재됨.
- 댓글은 5개 이슈 중 ‘전광훈’ 다음으로 많은 댓글이 달림
- 성범죄에 대한 부정적 언급은 목회자 개인의 범죄를 넘어서 이를 묵인하는 기독교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로 이어짐

“한국 성 폭행 1위 직업 - 목사”, “신이 없는 이유”
 “대상자 신상 공개해서 종교계에서 퇴출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도 성추행한 남목사, 아동 성추행한 남목사, 성범죄 저지른 남목사...
 다 한 사람 같지만 매번 다른 사람인게 소름이다”
 “진짜 하나님이 있으면 저 사람들에게 왜 천벌을 안주는지 궁금하다”
 - 성범죄 목사 관련 뉴스 댓글 중 발췌

[그림] 목회자 성범죄 관련 글 추이(총 댓글 수/총 본문수)

(건)



2

‘전광훈 목사’, 정치 이념화되면서 기독교 내에서 지지층이 어느 정도 형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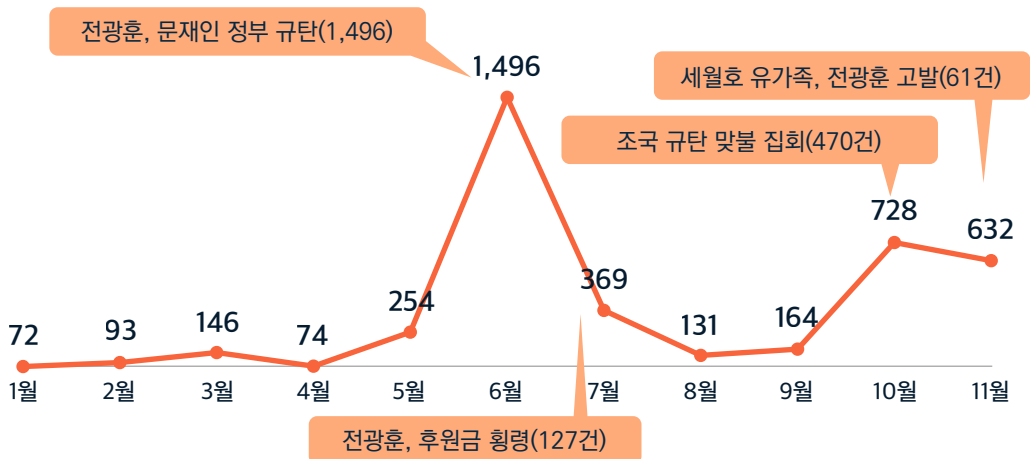
- 전광훈 목사 정치적 발언 전후 주목도는 6월 전까지 본문수 200여건 이하로 온라인에서 주목받지 못하다 6월 문재인 하야 발언으로 본문수가 1,496건까지 급증해 큰 주목을 받음
- 10월 조국 전 법무부장관 규탄 집회를 통해 다시 증가하면서 확산함
- 전광훈 목사의 발언은 개인 자격이 아닌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대표회장으로서 발언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정치적 의견을 넘어서 기독교의 대표적인 의견으로 인식되고 있음
- 전광훈 목사 관련 네이버 뉴스 댓글의 3가지 양상
 - ① 전광훈 목사 및 자유한국당을 지지하고 현 정부를 비판하는 의견
 - ② 전광훈 목사가 기독교를 대표하지 않는다는 의견
 - ③ 기독교 자체를 비난하는 의견
- 이 세가지 양상은 이념 논쟁 속에서 결국 한국 교회 이미지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크리스찬으로서 부끄럽고 참담하다. 거짓 장로와 가짜 목사가 주님의 이름과 신자들을 욕되게 하고 있으니...”
 “목사를 가장한 사이비 사기꾼일 뿐” “저러니 개독교 개독교 하지!”
 “나도 기독교지만 정말 실망스럽다. 한기총 해산시키지 못하면 한국기독교 미래는 없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해체하라! 하나님 영광 가리는 짓 그만하라”
 “그게 설교나 빨갱이 소리가 술술 나오네 광신집단...”

“문재인 하야하든가 탄핵 하든가, 이대로 놔두면 대한민국 망한다”
 “요즘같이 비겁한 목사들이 가득한 교계에 전광훈 목사님처럼 정의로운 목사님께서 ... 한국기독교의 큰 축복입니다!”
 “진정 나라를 위해 목숨거시는 전광훈 목사님 지지합니다! 병어리개같은 목사들은 회개하세요!”
 “전광훈목사님은 이 시대가 낳은 참 목자이십니다. 전광훈목사님!! 더 힘껏 응원합니다.”

- 전광훈 목사 관련 뉴스 찬반 댓글 중 발췌

[그림] 전광훈 목사 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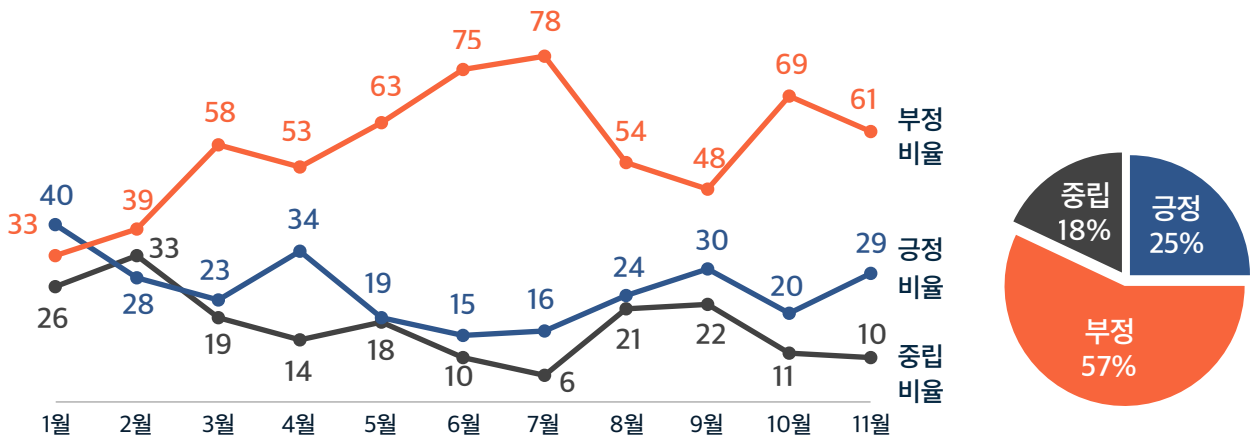


* 네이버 카페에서는 평소 200~300건이 꾸준히 게재됨. 네이버 뉴스에서는 5월말~6월초

- 전광훈 목사에 대한 연간 감성 분석 결과는 '긍정' 25%, '부정' 57%로 긍정보다 부정이 더 높는데, 10월 이후 긍정 비율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임

[그림] 전광훈 목사 관련 글 감성 추이

(%)



3

‘동성애’, 6월 퀴어 축제를 계기로 긍정 의견 대폭 증가함

- 네이버 카페에서는 평소 200~300건이 꾸준히 게재됨. 네이버 뉴스에서는 5월말~6월초 서울문화퀴어축제를 계기로 510건까지 증가함
- 퀴어축제를 계기로 6월부터 동성애에 대한 긍정 비율이 대폭 증가됨
- 동성애를 비판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 이념 논쟁으로 이어짐.
- 동성애 반대 여론이 자유한국당 지지, 황교안 지지, 전광훈 지지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어 ‘기독교’ 자체에 대한 옹호보다는 정치적 의도로 이용될 가능성이 큼
- 동성애에 대한 연간 감성 분석 결과는 ‘긍정 58%, ‘부정 38%로 긍정이 더 높음
- 따라서 기독교의 동성애 반대 움직임은 현재 소수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와 상충되는 것으로 기독교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한 요인이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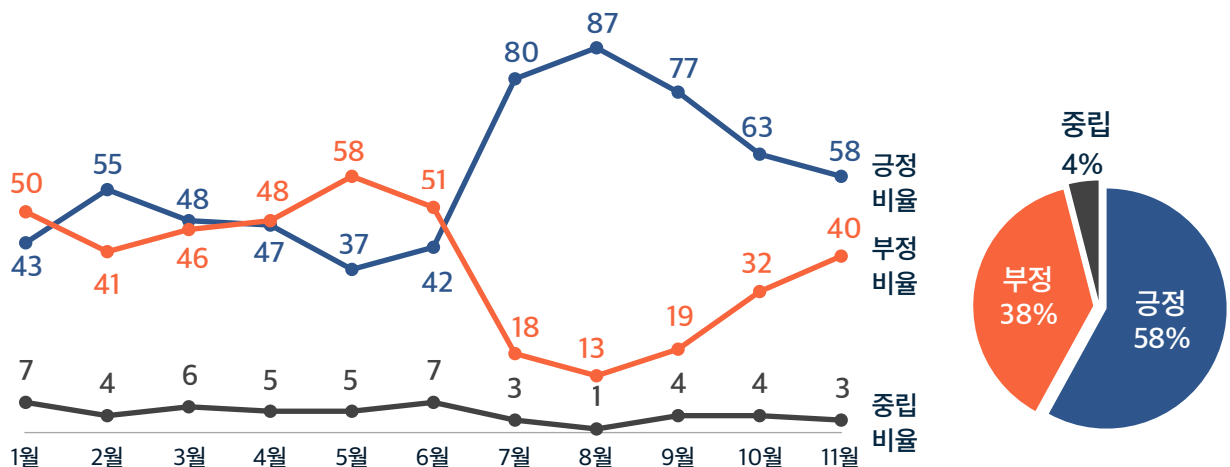
“멋지다 황교안! 황교안 대통령 확정...”
 “에이즈 창궐의 주범인 동성애...그걸 옹호하는 좌파 정치인은 물러가라”
 “성경에 동성애는 죄악이고 돌로 쳐 죽이라고 했다. 틀린거 하나없다”
 “문재인 종교가 천주교라더니 사이비인가보군...”
 “물타기 하고 있네! 동성애는 기독교인들도 싫어하지만 일반인들은 더 싫어한다! 동성애는 진짜 극혐!”

“사랑에 차별이 있어야 하나? 나와 다를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기독교를 사이비라고 비난하면 기분 나쁘겠지. 다른 사람들도 그래.”
 “주위 동성애자를 직접 보니 동성애는 선택의 영역이 아니더라 노력해도 벗어날수 없는...처음부터 그렇게 태어난 것...이해한다”

- 동성애 관련 뉴스 찬반 댓글 중 발췌

[그림] 동성애 관련 글 감성 추이

(%)



4

‘명성교회’, 예상 통합 총회 전후로 온라인상에서 치열한 긍·부정 의견 대립

- 명성교회의 단순 본문수는 평소 200건 이하였으나 9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에서 명성교회 세습을 용인하는 결정을 내리자 527건까지 데이터 급증함
- 6월까지의 명성교회 긍정 의견이 많다가, 9월 총회 전까지는 부정 의견, 그 후로는 치열하게 긍·부정 의견이 대립하는 양상을 보임
- 명성교회에 대한 연간 감성 분석 결과는 ‘긍정’ 40%, ‘부정’ 36%로 긍정이 약간 더 높음. 이는 명성교회 문제에 관여도가 높은 명성교회 지지자들 또는 관련자들의 글 참여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결과로 보임
- 총회의 결정에 많은 댓글이 생성되고, 댓글의 대부분은 한국 교회에 대한 비판 내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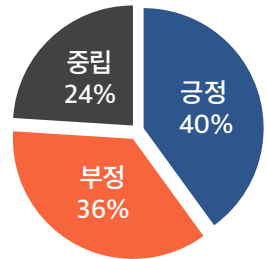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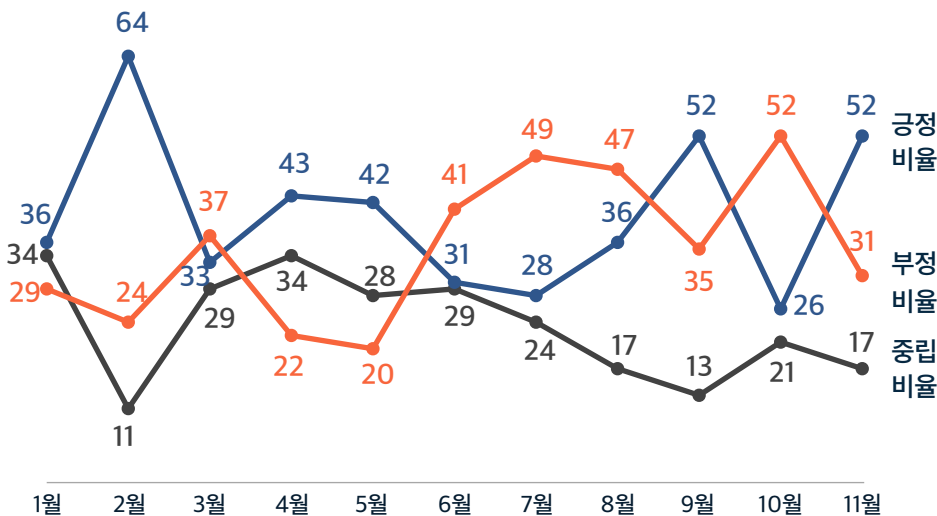
“한국 교회는 죽었다”
 “명성왕국을 건설! 창피하고 부끄럽다”
 “이제 교회는 종교가 아니다. 돈 벌기 좋은 사업일 뿐...목사 직함을 사장으로”
 “세습, 부자, 권력에 관대한 교리!...나눔과 사랑의 예수님은 사라졌다”
 “1,204명 중 920명 찬성...확실히 신은 없다”

“남의 교회일에 감놔라 팔놔라, 당신들이 교회에 현금한번 한 적 있소?”
 “아무 권리도 없는 자들이 여론몰이 하여 멸절한 교회 파탄내려 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성경에 세습에 대한 언급이 없다.”
 “명성교회 교인들이 결정 할 일이다. 현재 담임목사를 지켜주고 싶다”

-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의 명성교회 세습 허용 관련 뉴스 댓글 중 발췌

[그림] 명성교회 관련 글 감성 추이

(%)



5

‘신천지’, 버즈량(본문수)은 1위이나 관심도/참여도는 최하위로 일반인에게 확산되지는 않음

- 5개 이슈 중 조회수 비중(관심도)가 가장 높으나, 관심도와 참여도는 매우 낮음. 이는 신천지 찬반 사이트에서만 글이 무차별적으로 실릴 뿐, 일반인까지는 거의 확산되지 않음을 의미함
- 신천지 전체 본문에서 신천지 반대 글은 40%, 긍정 글은 60%로 긍정 글 비중이 더 높음
- 신천지 반대 글은 ‘사이비 신천지’라는 네이버 카페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신천지 긍정 글은 ‘나도 신천지 기자다’ 외 다양한 카페를 통해 글이 확산되고 있어, 신천지 반대 인플루언서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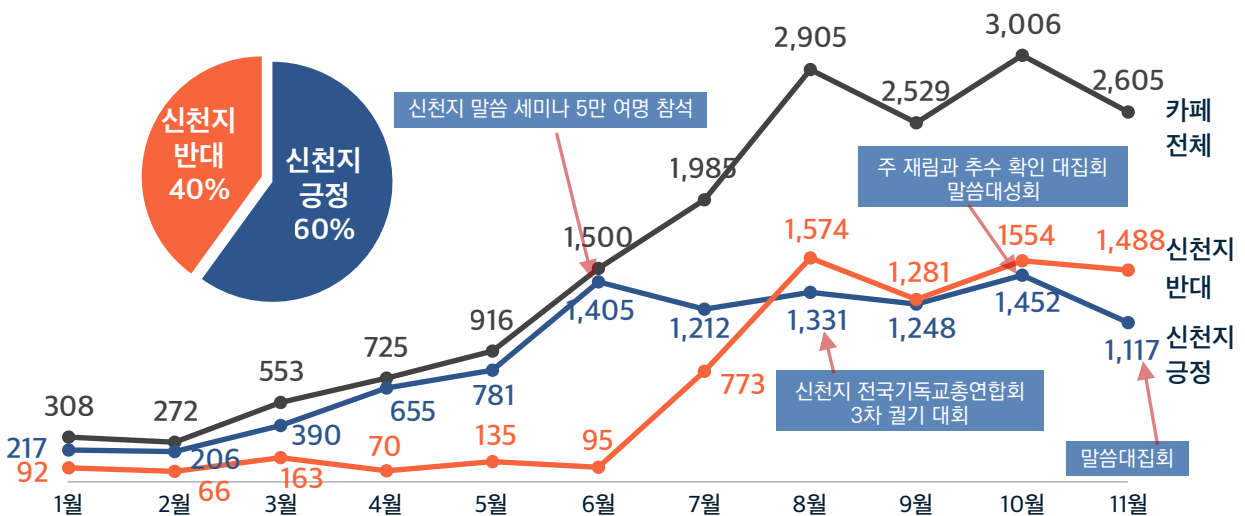
“사이비 신천지와 이만희는 없어야 함”
 “3년 있다 나왔는데 정신차리세요 여러분 진짜...불쌍하다”
 “신천지는 이만희의 내연녀였던 김남희를 만민의 어머니라고 추대하던 곳... 하지만 김남희는 신천지에서 도망나옴. 신천지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면 김남희가 도망나왔을까?”

“신천지는 10만명이 넘게 성장했는데 한국 교회는 교단중에 성장세인 교단이 있는가?
 신천지가 가짜라면 알아서 하나님이 진작 없애셨겠지”
 “10만3764명의 수료생중 한 명입니다.이런 거짓 기사를 볼 때마다 믿음이 더 커집니다.
 신천지인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이단 아닌가요? 10년간 범죄 저질러서 유죄 판결 받은 목사가 12000여명이면
 종교집단이 아니고 범죄집단 아닌가요?”

- 신천지 관련 뉴스 찬반 댓글 중 발췌

[그림] 신천지 글 확산 추이(네이버 카페)

(단)



[그림] 신천지 인플루언서

신천지 반대 인플루언서		신천지 긍정 인플루언서	
카페	작성글 수	카페	작성글 수
사이비 신천지	6,919	나도 신천지 기자다	329
나의 전능자	211	세상을 이기는 신천지의 빛	94
바로 알자 신천지	78	신천지예수교회 공식 카페	51
		미니어처 헤븐	36
		천지일보	15

● 2019년 월별 온라인 주도 이슈



426일 만에 노사 합의를 이룬 파인텍 굴뚝농성에 대해 종교인들이 지지하고 해결을 촉구하는 활동 전개



JMS의 정명석 교주 성폭력 혐의, 변승우 목사의 이단 해제 무효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부처님 오신 날 법요식에서 합장 거부



문재인 대통령 하야 발언으로 전광훈 목사가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은 이후 7월과 11월에도 주요 이슈로 등장할 만큼 하반기 기독교 여론을 주도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에서 명성교회 세습 관련 결정을 한 이후 2개월 동안 지속된 명성 교회의 세습 관련 글(1,097건)

2019년 한국 교회의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성 회복”이 관건임

- 감성 분석*을 통해 볼때 2019년 한국 교회 관련에 대해 긍정 관련 글의 빈도수에서 ‘말씀 묵상 및 공유’가 3,367건으로 가장 높았고, ‘불우 이웃 돕기’ 1,969건, ‘추석에 이웃 돕기’ 88건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국의 크리스천들의 말씀 나눔과 공유가 매우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임
- ‘기독교/교회/목사’ 관련 긍정적인 활동으로 언급된 것은 ‘이웃 돕기’이었음. 교회가 약자를 돕는 실천적 행위에 나설 때 한국 교회에 긍정적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다고 보임
- 부정 글의 빈도수를 보면 1순위는 기독교의 극단적 정치적 논란, 2순위로는 기독교의 세습, 3순위로는 목사의 성폭행으로 종합해 볼 수 있음
- 세가지 모두 단순히 기독교 내 문제가 아닌 일반 사회의 대중 인식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한국 교회의 공공성 회복이 매우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 감성 분석 : 게시글 혹은 댓글의 본문을 형태소 단위로 구분하여 형태소 별로 긍정, 중립, 부정 점수를 계산한 후 합산한 값. 즉 특정 이슈에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했으면 긍정 글로,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했으면 부정 글로 분류함

[표] 주요 긍정 관련 글

순위	빈도수	내용
1순위	3,367건	말씀 묵상 및 공유
2순위	1,969건	불우 이웃 돕기
3순위	88건	추석에 이웃 돕기

[표] 주요 부정 관련 글

1순위 기독교의 극단적 정치적 논란		2순위 기독교의 세습		3순위 목사의 성폭행	
키워드	빈도수	키워드	빈도수	키워드	빈도수
전광훈	9,322	명성교회	5,496	성폭행	1,750
황교안	6,177	세습	5,381	성폭력	1,644
자유한국당	4,643	총회 수습안	721	정명석	1,349

6 시사점

2019년 사회에 비친 한국 교회의 모습을 ‘목회자의 성범죄’, ‘전광훈 현상’, ‘동성애’, ‘명성교회’, ‘신천지’로 특징지을 수 있다. 신천지를 제외한 이슈는 단순히 개인 혹은 개 교회를 비판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한국 교회, 기독교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있다.

목회자 성범죄는 관심도(조회수 비중) 1위, 참여도(댓글 비중) 2위로, 다른 이슈와 달리 매일 꾸준히 게재된다. 5개 이슈 중 한국 교회 신뢰도 하락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판단된다. 한국 교회 차원에서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이유이다. 먼저 목회자의 성 윤리에 대한 확고한 태도가 정립되어야 한다. 또한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숙한 관계에서 이루어진 성범죄는 양자 간에 권력 관계 혹은 위계의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다. 목회자에게 그루밍 성범죄가 많은 것은 목회자와 성도 간의 친밀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지속적인 목회자 재교육과 함께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가 합리적이고 수평적이 되어야 할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전광훈 현상은 이미 형성된 사회적 현상이다. 감성 분석에서 전체적으로 부정 비율이 높지만, 긍정 비율이 25%나 되어, 설문조사 결과(13%, 기사연, 사회현상에 대한 개인교인 인식조사, 2019.09)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정한 정치적 지지 세력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전광훈 현상은 목회자의 과도한 정치 개입이라는 한국 교회에 큰 화두를 던졌다. 따라서 이 문제는 교회 또는 목회자가 목회자 신분으로 정치 혹은 사회 참여를 어느 수준과 어떤 형태로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한국 교회 내 활발한 토론이 전개되어야 할 필요성을 던지고 있다.

동성애를 바라보는 시각은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사이에 인식의 차이가 크다. 그래서 기독교를 옹호하기 위한 동성애 비판이 사랑과 포용의 아이콘이어야 할 기독교가 혐오와 배제 그리고 차별에 앞장서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따라서 기독교는 동성애를 반대하면 할수록 사회적 신뢰도가 하락하는 딜레마에 놓여있다. 교회가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혐오와 배제 그리고 차별의 모습으로 비치지 않게 해야 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명성교회 세습은 신분 상승의 기회가 사라진 한국사회의 아킬레스 건을 건드렸다는 점에서 한국 교회가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이번 빅데이터 분석에서는 명성교회에 대한 긍정 글이 부정 글에 못지않게 게재되고 있는 점이 눈에 띄었다. 이 문제를 교회 내부의 문제로만 봐서는 안되고 사회적 기관으로서 교회라는 관점에서도 보고 교회의 공공성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신천지는 현재 이단 중 가장 공격적인 포교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한국 교회에서는 신천지에 대해 온라인 상에서의 대처가 그다지 활발하지 않다. 한 명의 인플루언서가 홀로 고군분투하여 신천지 반대 글들을 열심히 올리는 중이다. 교회와 교단은 신천지 출입을 금한다는 스티커를 교회에 붙이는 소극적인 차원을 넘어서 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2019년 온라인 빅데이터 분석에서 한국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들은 교회가 이웃과 약자를 돕는 일에 앞장설 때 나타났다. 교회가 자기를 낮추고 비우며 이웃을 위해 나서고 희생하는 모습, 이것이 사회가 교회에 바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 교회가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윤리를 되찾아야 한다. 그리고 교회의 공공성에 대한 자각을 하고 그 공공성에 입각하여 교회를 사회적 역할을 다할 때 한국 교회가 사회에서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을 것이다.

1 최근 언론 보도 통계

10대 청소년, 관심·흥미 주제 찾을 때, 유튜브가 압도적
한국인 5명 중 1명 '종종 소외감을 느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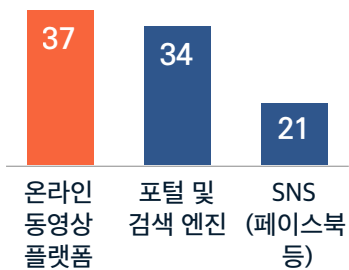
2 언론 보도 및 이슈 큐레이션

1

10대 청소년, 관심·흥미 있는 주제 찾을 때 '유튜브 등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가장 많이 이용

- 10대 청소년이 관심이나 흥미 있는 주제가 있을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경로로는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이 3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포털 및 검색 엔진' 34%, 'SNS' 2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초등학교와 중학생은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이 1위인 반면, 고등학생은 '포털 및 검색 엔진'이 1위임

[그림] 관심·흥미 있는 주제 있을 때 주 이용 경로(상위 3위) (%)



[그림] 관심·흥미 있는 주제 있을 때 주 이용 경로(학급별 상위 3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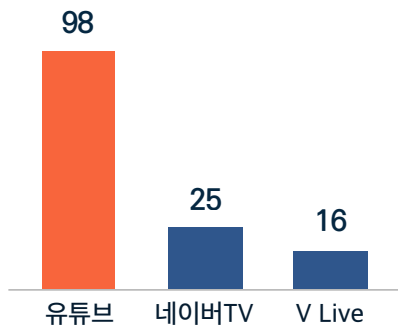
순위	초등학교	중학생	고등학교
1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50%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34%	포털 및 검색 엔진 41%
2	포털 및 검색 엔진 30%	SNS 31%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28%
3	SNS 8%	포털 및 검색 엔진 29%	SNS 24%

*자료 출처 :한국언론진흥재단, '2019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 조사', 2020.01.06.(전국,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2,363명, 대면면접조사, 2019.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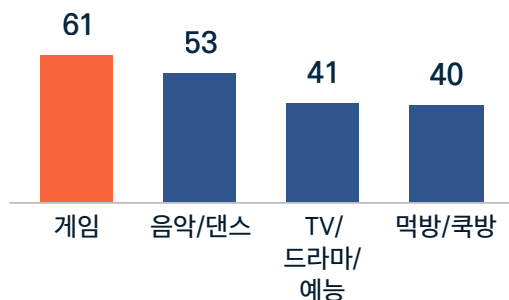
● 이용하는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중에서는 유튜브(98%)가 압도적

- 1주일간 이용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은 '유튜브' 98%, '네이버TV' 25%, 'V Live' 16% 등의 순으로, 유튜브에 집중되는 현상을 보임
- 청소년이 가장 즐겨보는 온라인 동영상은 '게임'이 6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음악/댄스' 53%, 'TV/드라마/예능' 41%, '먹방/쿡방' 40%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1주일간 이용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복수응답, 상위 3위) (%)



[그림]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에서 이용한 콘텐츠(복수응답, 상위 4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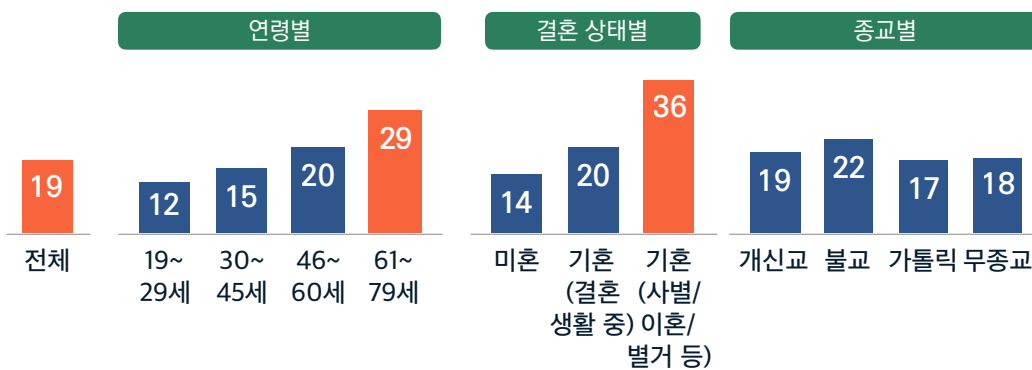


*자료 출처 :한국언론진흥재단, '2019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 조사', 2020.01.06.(전국,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2,363명, 대면면접조사, 2019.07)

2 한국인, 5명 중 1명 '종종 소외감을 느낀다'

- 2019년 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2019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결과, 우리 국민의 19%, 즉 5명 중 1명 꼴로 종종 소외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종종 소외감을 느끼는 계층은 고연령일수록 높고, 미혼보다는 기혼이 높는데, 특히 '사별/이혼/별거 기혼층'(36%)이 미혼층(14%)보다 무려 2배 이상 높게 나타남
- 종교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그림] '종종 소외감을 느낀다'에 '그렇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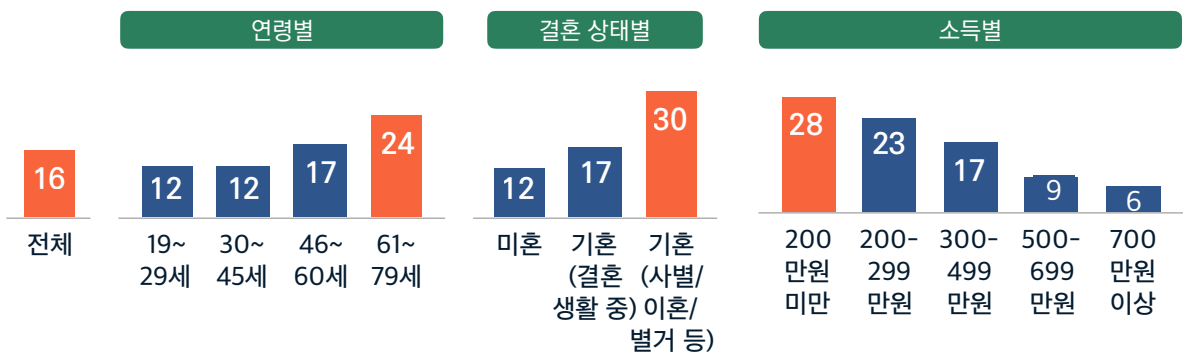


*문화체육관광부/한국갤럽, '2019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2019.12.18, (전국 만 19~79세 5,100명, 가구 방문 면접 조사, 2019.8~9월).
 **4점 척도 항목으로 '그렇다'(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 비율임

● 한국인, '종종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낀다' 16%

- '우리 국민의 16% 정도가 '종종 무시당한다고 느낀다'고 응답해, 6명 중 1명 꼴로 평소 열등감과 피해의식 속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갖는 사람은 앞에서의 소외감 느끼는 경우와 비슷하게 고연령일수록 많고, 미혼보다 기혼이, 기혼자 중에는 '사별/이혼/별거 기혼층'이 미혼층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소득 수준 별로는 저소득층일수록 높음

[그림] '종종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낀다'에 '그렇다' 비율** (%)



*문화체육관광부/한국갤럽, '2019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2019.12.18, (전국 만 19~79세 5,100명, 가구 방문 면접 조사, 2019.8~9월).
 **4점 척도 항목으로 '그렇다'(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 비율임

3 언론 보도 기사 및 큐레이션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신종코로나가 가져온 사회 변화](#)

조선일보_2020.02.03

“이불 밖은 째째해’ 언택트 소비 폭발”



[당신은 꼰대입니까? 아니면 멘토입니까?](#)

중앙일보_2020.01.30

“꼰대자가진단’ 해보니...‘멘토’와 ‘꼰대’는 한 곳 차이”



[청소년, 돈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매일경제_2020.02.05.

“돈 많으면 존경받아’ 28% ‘아니다’ 34%”



[성전환에 대한 인식](#)

한국일보_2020.01.31

“국민 60% ‘성전환수술 해도 된다’... 군 복무 가능 질문엔 58% ‘반대’”



[1인가구, 여자가 남자보다 자기집 소유율 훨씬 높아](#)

매일경제_2020.02.03

“자기집’사는 여성 1인가구 43%..남성은 18% 왜?”



[20대 정치 성향 분석](#)

헤럴드경제_2020.02.06

“진보도 싫고 보수도 싫고”... ‘캐스팅보트’ 권 젊은 그들”

스토리가 있는 기사



[성실함의 대명사 개근의 의미 변화](#)

머니투데이_2020.02.02

“개근거지’ 아세요?...교실에 퍼진 新협오”



[망해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 _ 사업 망한 사람들의 이야기](#)

조선일보_2020.02.01

“실패자의 보약... 망비보를 아십니까?”



[이념 양극화를 더욱 강화시키는 스마트폰](#)

중앙일보_2020.02.04

“알고리즘 의존하는 일상이 이념 양극화 불러”

역대 주간 리포트 주요 내용

- 제 1호 | 인구 절벽, 그리고 개신교 인구 변화
- 제 2호 | 대한민국은 갈등 공화국(사회적 신뢰도, 갈등지수) | 종교 스위칭
- 제 3호 | 모바일 시대가 온다(개신교인 미디어 이용 실태) | 청년층 운세보기 | 황혼 이혼
- 제 4호 | 나홀로 Life, 나는 혼자여도 좋다 | 함께 일하고 싶은 리더
- 제 5호 | 다문화 가족, 그들도 우리의 이웃이다(이주 여성 실태) | 북한 비핵화 인식
- 제 6호 | 위기의 크리스천 대학생(대학생 종교 실태) | 불법 촬영(몰카) 실태
- 제 7호 | 하루 13명, 술 때문에 죽는다(음주실태) | 청년 취업 실태
- 제 8호 | 여름휴가, 어떻게 보내십니까(교회 수련회 통계) | 남성 육아 휴직
- 제 9호 | 유튜브 홀릭 | 한일 분쟁
- 제 10호 | 흡연, 성인 남성 하루 100명 죽는다 | 55세 이상 고령층 취업 희망자
- 제 11호 | 크리스천 4명 중 1명, 교회 안 나간다 | 한국인, 정신·심리 관련 조사
- 제 12호 | 북한이탈주민, 연 가구 소득 2,000만 원 미만 40% | 2019 대한민국 영향력 있는 인물 순위
- 제 13호 | 추석, 즐겁지만 여성에게는 힘든 명절, 89% | 2040 아빠 육아경험, 고령화 통계
- 제 14호 | 한국인, 인간관계를 축소하고 있다 | 합계 출산율, 전국 초중생 방과후 학원 이용 실태
- 제 15호 | 한국인 행복도, '돈'에 과도하게 영향받고 있다 | 임금 근로자 연봉 상하위 격차 14.4배
- 제 16호 | 한국인 1일 37명 자살 | 우리나라 기부 참여율 40%(최근 1년간)
- 제 17호 | 장애인, 문화 활동 거의 못하고 있다 | 한국 부자 보고서 분석
- 제 18호 | 장애인 실태 2, '장애인 근로자, 고용 기업의 만족도 높다!' | 미국 크리스천의 담임 목사 인식 조사, 한국 국가 경쟁력 순위
- 제 19호 | 한국 사회 혐오, 심각하다 96% | 100세 시대 인식조사
- 제 20호 | 특별판(1-19호) 종합 정리
- 제 21호 | 개신교인, 전광훈 목사 긍정적 평가 13% | 한국 사회 공정성 평가조사
- 제 22호 | 당신은 '꼰대'입니까? | 문재인 대통령 임기 반환점, 주요 여론조사 통계
- 제 23호 | 학벌 중심 사회, 국민 절반 가까이 학력 콤플렉스 '느낀 적 있다' | 평생직장 인식 변화, 우리나라 커피 소비 인식 조사 결과
- 제 24호 | 가족 호칭, '가부장 문화가 반영됐다' 72% | 한국인이 좋아하는 인물편(분야별)
- 제 25호 | 한국인의 결혼 · 가정관 빠르게 변하고 있다 | 한국인이 좋아하는 브랜드(일반 국민 vs 개신교인 비교), 우리 국민 절반은 '나는 가난하다' 생각한다)
- 제 26호 | 개취를 아십니까? | 전세계 기독 청년의 교회 인식 조사, 한국인의 기대 수명
- 제 27호 | 한국인의 기부, 불투명성이 발목 잡는다! | 2019 초중등 진로 교육 현황 조사 결과, 1인당 노동소득과 소비 간 비교
- 제 28호 | 2019 [넘버즈] Top 7
- 제 29호 | 2020년 1인 가구 대세 시대 | 미국 크리스천, 교회 출석 이유, '목사의 설교 내용' 절대적임, 한국 사회, 빈익빈 부익부 현상 뚜렷하게 나타남
- 제 30호 | 50년 뒤 한국, '국민 2명 중 1명이 노인!' | 한국인 새해 경기 및 살림살이 전망,

역대
주간
리포트
주요
내용

31호 |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찾는 대상, '가족!' | 2020 새해 목표, 성격 변화

32호 | 이제는 착한 소비의 시대! | 2019년 한국 파송 선교사 현황, 한국인 4명 중 1명 '사소한 일에 화가 난다'

목회데이터연구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8가 17 현빌딩 2층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후원 방법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후원 교회, 기관, 개인은 홈페이지에서 게시하고 있습니다).

문의 : 02-322-0726,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후원 링크 → [클릭 하기](#)

섬기는 이들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원장)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ykji@mhdata.or.kr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marpro@mhdata.or.kr

김준영 | 목회데이터연구소 연구원 | jy0113@mhdata.or.kr